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詩 考察

부 영 근*

차 례

- I. 머리말
- II. 秋史 流配詩의 全般的 特性
- III. 流配詩의 世界
 - 1. 內的葛藤의 苦惱 表出
 - 2. 流配地의 그리움 形象
 - 3. 求道와 達觀의 情景
- IV. 맺음말

I. 머리말

靑朝의 거센 실학사상의 물줄기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시대사조를 재빨리 포착하여 시대성에 적응하고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여 조선조 후기의 최후를 장식한 위대한 한학자라면 주저없이 추사 김정희(1786-1856)를 손꼽을 것이다.¹⁾ 그는 새로운 학문, 사상 예술 등에 걸쳐 실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본 고에서는 그 중 그가 56세 때인 헌종 6년(1840) 9월에 尹尙度의 獄事에 연좌되어 제주도 大靜縣에 圍籬安置된 이후 63세인 헌종

* 대구한의대 기초과제 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자대전 번역팀.

1) 한철희, <阮堂金正喜藝術放>,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69.

14년(1848) 12월 6일에 해배될 때까지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김정희에 대한 연구는 그가 펼친 천재적 예술성과 맞물려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²⁾도 문집이 번역됨과 함께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 그의 제주 유배 시절 작품에 대한 연구도 유배문학을 밝히기 위한 일환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얼마간 밝혀진 셈이다. 특히 김태수가 추사의 유배시절 문학에 대하여 집중 조명한 연구³⁾와 이철희가 추사의 중국 문학이론 수용 전반의 과정을 심도 있게 밝힌 논문⁴⁾은 그 중에 주목되는 글이다. 따라서 필자 역시 그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작품 배경으로서의 제주라는 독립된 환경에 주목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선 그의 제주 유배시절 전체 시 작품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 분류하고 추사 유배시의 전반적 특성에 대한 선행적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의 유배시의 세계에 접근하여 內的 葛藤의 苦惱 表出, 流配地의 그리움 形象, 求道와 達觀의 情景이라는 세 가지 차트를 가지고 실

- 2) 이우성, <金秋史 및 中人層의 性靈論>, 《韓國漢文學研究》제5집, 한국한문학 연구회, 1980-1981.
 김혜숙, <김정희의 시론 연구>, 《울산어문논집》제5집,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정동우, <阮堂 金正喜의 詩文學攷>, 《동약한문학논집》, 동국대학교, 1992.
 양순필, <秋史 金正喜의 漢文書翰攷>, 《탐라문화》제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옥영정, <秋史家의 藏書에 관한 一考(東濱文庫 所藏本을 중심으로)>, 한국서지학회 추계발표회, 2003.
 정후수, <金正喜가 본 濟州道の 修學분위기>, 《동양고전연구》, 1995.
 ———, <秋史 金正喜 詩의 한 特性(典故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1994.
 양순필 · 양진건,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강주진, <僻派家門 出生의 秋史 金正喜(濟州 流配動機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김봉옥, <추사 김정희의 유배시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김용태, <玉垂 趙冕鎬를 통해 본 秋史 金正喜>, 대동한문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2005.
- 3) 김태수, <추사의 유배시 연구>, 《한국학논집》제10집, 1992.
 4) 이철희, <추사 김정희의 시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체적 진실에 접근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추사의 제주 유배시절 작품이 가지는 우리 문학사적 가치는 물론 좁게는 이방인들의 제주를 배경으로 한 한문학의 성과들, 곧 조선후기 일정한 경향성을 띠는 예컨대 제주민의 극심한 기아를 최선을 다해 구제하려 했던 만덕을 소재로 채제공(1720-1799)이 <萬德傳>을 쓴 이래로 조수삼(1762-1849)이 이를 소재로 시 작품을 남겼고 黃裳도 <耽羅妓>라는 제목으로 만덕을 형상화하려 했던 경향⁵⁾에 대해 단일 소재가 작가 혹은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흐름을 파악하려는 연구와, 복헌 김춘택의 《閃海錄》, 석북 신광수의 《耽羅錄》 등의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⁶⁾ 그리고 제주를 다녀간 수많은 관리들에 의해 형성된 기록들에 대한 연구⁷⁾와 관련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드러내리란 기대를 가진다.

II. 秋史 流配詩의 全般的 特性

추사의 제주 유배 시는 총 51제 81수가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의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 5) 진재교, <實學派의 漢詩>, 《이조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2001.
 6) 부영근, <北軒 金春澤의 『閃海錄』의 한 局面>, 《한문학연구》제17집, 계명한문학회, 2002.
 _____, <石北 申光洙의 『耽羅錄』 考察>, 《영주어문》제8집, 2004.
 _____, <地方文學으로써 石北의 한시>, 《동아인문학》제6집, 2004.
 7) 부영근,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한문학연구》제14집, 계명한문학회, 1999.

<표1>秋史의 濟州道 流配 詩 分類

| 現實詩 | 戀憫詩 | 求道詩 | 考證詩 | 藝術詩 | 詠史詩 |
|--|---|---|--|---|---|
| <偶作>, <偶作>, <次癸詹>3 寸, <水仙花 在在處處 可 以谷量 田苗 之間尤盛 土 人不知爲何 物 麥耕之時 盡爲鋤去> <年前禁水 仙花>, <瀛 洲偶吟>2寸, <口號七絕 贈江亭金 生>6寸, <尤齋遺墟 碑>, <題 彝齋書許維 扇面後>, <題慈妃便 面> | <瀛洲禾北 鎮途中>, <元宵述懷>, <海上重九 無菊作瓜 餅>, <偶 題>2寸, <失題>, <鵲巢>, <和示台濟>, <上元芻靈 示商彥> | <水仙花>, <映山紅>, <玉美人>, <庭草>, <馬磨>2寸, <喚風亭>, <村舍>, <汲古泉試 茶>, <詠 雨>3寸, <失題>, <江村讀書>, <小遊仙 詞>13寸, <咏棋> | <癸詹徒漂 船歸人得日 本刀而見示 漫此走呼贈 之>, <嘲金 生如筠漆 痂>,<臘日 戲題>,<三 泖喜晴>, <題蘭>, <戲題贈達 峻> | <示島童>, <冬青葉大 如手掌 可以 供書>,<大 靜村舍>, <雪夜偶吟>, <題小癡指 畫>,<題小 癡墨芭蕉>, <題小癡指 畫>,<又題 小翠寫慈妃 像>2寸, <代台濟次 題火畫作>2 寸,<韓生應 者以紫霞書 卷要余一語 徒寫以示>, <和題石帆 本慈妃戴笠 小像> | <示雲衲仍 證明史>, <漢瓦當>, <題贈延曦 閣主人> |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제주 유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얼마간 인간적인 연민을 드러 내기도 하지만 곧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求道에 열중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考證의 달견과 예술적인 안목, 역사적인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새로운 작품창작에 대한 모색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려했던 것은 박제가에게서도 발견된다. 그 역시 56세부터 시작된 4년 동안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北關의 유배체험을 시에 담음으로써 평생 보여주던 참신성의 행보를 지속했다.⁸⁾ 그리하여 《竟信堂夾袋》라는 시집을 남겼다.

물론 추사의 경우 오랜 유배기간에 비해 작품 수가 적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석복 신광수가 45일 동안 금오랑으로 임무 수행 중 폭풍에 길이 막혀 지내는 동안 지은 100여 수의 작품을 묶어 명명한 《耽羅錄》과 직접 비교해보면 추사의 작품은 유배된 세월에 비해 매우 적은 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양적인 측면에서만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각각의 작가들이 처한 당시 환경을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다만 추사는 고증적 달견을 가진 완벽주의자였다. 그가 남긴 예술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작품 한 작품을 혼신의 힘을 다해 그의 예술적 천재성을 실현하려 하였던 것처럼 시를 창작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부분 소홀함이 없이 완벽한 작품을 남기려 하였으니 이러한 그의 철저한 작가정신은 그가 제주 유배지에서 남긴 많지 않은 작품들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추사의 제주 유배기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이른다. 이 시기는 다른 말로 ‘知天命’의 후반기에서 ‘耳順’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를 지나면 ‘從心所欲不踰矩’의 결말의 단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추사는 제주 유배기를 맞는다. 따라서 그는 유배의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 그의 유배가 얼마간 예견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양자로서 집안에서 장자의 역할을 받아들여 가문 내지 당파를 대표했을 때 이미 이러한 정치적 반대급부의 희생을 예감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가 남긴 작품에서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연민하는 모습이 형상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비판의 심경 표현이 아니라 耳順으로 가기 전 마지막 내면의 성숙을 위한 완성기이고

8) 안대회, <朴齊家の 『竟信堂夾袋』와 北關風情>, 《韓國漢詩研究》제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그리워하는 참된 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다. 그렇다면 추사에게 제주가 주는 의미는 耳順을 통해 ‘從心所欲不踰矩’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에게 유배 시기가 없이 평탄한 생을 살았더라도 실질적인 모습이 지금과 큰 태두리에서의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평생 동안 내면의 쌓임이 외면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에 이미 그의 내면에는 耳順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제주 유배는 좀더 치열한 내면의 성숙을 요구했고, 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성숙된 모습이 들여다보이는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 | |
|---------|-----------------------------|
| 一點冬心朶朶圓 | 한 점 겨울 마음 떨기떨기 둥근데 |
| 品於幽澹冷雋邊 | 그윽하고 담담한 품격 냉기를 뚫고 돋았네. |
| 梅高猷未離庭砌 | 고상하다는 매화 뜰 섬돌을 떠나지 못하는데 |
| 清水眞看解脫仙 | 맑은 물 속에서 진실로 해탈한 신선 보겠구나.9) |

당시 수선화는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꽃이었다. 그래서 당시 사대부들은 수선화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였다. 따라서 유배지 제주에서 수선화의 발견은 그에게 진흙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남긴 수선화를 소재로 한 여러 편의 작품들 속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결국 그는 수선화가 가지는 의미를 得道의 상태로 받아들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도의 삶을 살지만 서울에서 아무리 구하러 해도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수선화를 제주에 유배된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제주 유배지에서 획득한 자신만의 세계로 형상화하였다.

그는 한 겨울 냉기를 뚫고 돌아나는 수선화의 강인함을 통해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모습을 살피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의 선비들이 애지중지하는 매화가 실제로 뜰 밖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을 들어 수선화

9) 김정희, 《완당전집》권10, <水仙花>.

와 직접 비교하며 수선화를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고 해탈한 신선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결국 자신의 이상인 物我一體의 세계에 접근시켜 대상을 관찰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圍籬安置된 제약된 공간 속에서 소재의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면서도 아무나 볼 수 없는 것들에 자신을 투영하여 현실을 탈피하려는 강한 의지의 소산으로 보인다. 결국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욱 더 학문수련을 강화하여 속박된 구속의 세계를 탈피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는 다른 시인들이 유배지에서 쓴 일련의 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의지와 내용을 담으려 하였다. 완전히 달라져 버린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고 이제까지 추구하려했던 사회적 이상 실현이라는 꿈을 접고 참된 자기의 발견이라는 자기만의 명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 | |
|---------|------------------------------------|
| 花紅強字映山紅 | 꽃이 붉어 억지로 영산홍이라 하였지만 |
| 品格元來自不同 | 품격은 원래부터 같지 않네. |
| 火樹圖中須一補 | 붉은 꽃 그림 속에 한 가지를 보충하니 |
| 別有春風點施工 | 특별히 봄바람에 공력을 베푸는구나. ¹⁰⁾ |

사물을 보는 시각은 작자의 현재 상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곧 작자의 처지에 따라 대상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꽃이 붉다는 점에 주목하여 봄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그만의 공력을 간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시키려 하였다. 작자는 영산홍이라는 사물에서 이미 중요시 되어 왔던 詩意와 氣에 자신의 意와 氣를 결부시켜 新意를 표현하고자 하였다.¹¹⁾ 그는 외로운 유배지의 생활 속에서 영산홍이라는 대상물을 남과 다른 시각으로 형상화하고 자신과 동일시하여 유배의 상황에도 의연한 자신의 이미지로 배가시키고 있다.

10) 김정희, 《완당전집》권10, <映山紅>.

11) 김태수, <추사의 유배시 연구>, 《한국학논집》제10집, 1992.

이러한 그의 구도적 삶은 마치 《大學》의 ‘三綱領’에서 ‘明明德’의 과정을 통해 ‘親民’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삶의 과정에서 획득된 修身의 상태를 조직적으로 구현하려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 | |
|---------|--|
| 人十能之馬一之 | 열사람 뉘을 한 마리 말이 하니 |
| 三家村裏詭神奇 | 삼성이 사는 마을 신기함을 자랑하네. |
| 大機大用元如此 | 연자방아 큰 쓰임 원래 이와 같으니 |
| 還笑宗風老占維 | 도리어 바람에 의지한 노고추 ¹²⁾ 를 비웃는다. |

| | |
|---------|---|
| 引泉爲確亦磨材 | 샘을 끌어 들인 물레방아 재주 초라하니 |
| 嘯嘶春歌莫見猜 | 조잘대는 방아 노래 시기하지 마라. |
| 似向先天探至象 | 선천을 향해 지극한 형상 탐지하듯 |
| 況疑龍馬負圖來 | 아마 용마가 그림을 지고 나오는 듯 하구나. ¹³⁾ |

그의 구도자적 삶이 밖으로 구현되었을 때 이용후생을 주창한 실학자다운 모습을 십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일반인의 눈으로는 그냥 지나쳐 버리기 십상인 제주의 말이 끄는 연자방아의 효용성을 물레방아와 절구를 가지고 오목조목 따져가며 濟民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제주를 살만한 곳으로 인정함에서 시작되는데 변방민의 생활에서 가능성을 느끼고 자신의 소망과 연결시키려 하였다. 나아가 연자방아의 힘찬 모습을 주역의 河圖 洛書와 직접 연결시켜 先天의 세계로 형상화하려 하였다. 연자방아를 돌려야하는 구속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말의 모습에서 유배의 굴레 속에서도 物我一體의 세계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려 하였다.

이상에서 추사 유배시의 전반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는 꽃이나 연자방아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자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외물의 본성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窮物之情의 신묘함을 다하여 物我一體

12) 노고는 존칭이고 추는 송곳인데 기봉이 예리함을 비유한 것이다.

13) 김정희, 《완당전집》권10, <馬磨> 2수.

를 통한 超越志向을 추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¹⁴⁾.

Ⅲ. 流配詩의 世界

앞서 유배시의 세계를 다루기 전에 공간을 초월하려는 그의 의식세계를 선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그의 제주 유배시절 시세계에 관해서 內的 葛藤의 苦惱 表出, 流配地의 그리움 形象, 求道와 達觀의 情景이라는 세 가지 차트를 가지고 본격 논의해 보려 한다. 그 결과 추사가 어떻게 유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무슨 갈등에 괴로워하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무엇을 이루려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기에 제주라는 공간이 그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1. 內的葛藤의 苦惱 表出

제주라는 지역적 고립성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관리나 유배객, 나그네 나눌 것 없이 수많은 문인들의 작품들 속에서 내적 갈등을 표현한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예컨대 금오랑으로 임무수행 중 풍랑으로 뱃길이 막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석복의 《耽羅錄》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배객의 경우 제주에서 겪는 내적 갈등은 그 어느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홀로 떨어진 듯한 느낌 그 자체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비판적 시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추사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다. 우선 그가 유배시절 남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분야를 포괄하여 창작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예술적인 시각도 완성도를 가일층 높였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역설적인 접근인지 몰라도 그는 제주의 고립된 환경을 잘 이용하여 참된 자기

14) 김태수, <추사의 유배시 연구>, 《한국학논집》제10집, 1992.

를 발견하는 마지막 시험대로 삼으려한 것 같다. 물론 북청 유배라는 별도의 단계가 있고 얼마간 갈등하고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그것들 역시 참된 자기를 찾으려는 방법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다.

朱鳥天邊大海湄
 神山蜿蜒走西支
 野中小治僅如斗
 靑石郭連短竹籬
 汞鉛寶氣靑霞磻
 松竹勁節東門祠
 人家盡依壽星下
 水仙千朵復萬枝
 元祐罪人惠州飯
 笠屐風雨忘居夷
 島童海丁近相熟
 有時叩玄策問奇
 獨豹勝似花豬肉
 麥麴新醅酒一鴟
 五雲多處夢如縷
 破悶春山橫翠眉

붉은 새 하늘 멀리 망망대해를 날고
 삼신산이 꿈틀꿈틀 서쪽으로 자리했네.
 들 가운데 작은 마을 하늘에 보이는 북두성 같으니
 푸른 돌 성곽 짧은 대 울타리와 이어졌네.
 붉은 보기 푸른 노을 같은 비갈이니
 송죽 같은 굳은 절개 동문의 사당이네.
 인가들은 모두 수성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고
 수선화 천 떨기 다시 만 가지 갈래지네.
 원우죄인 해주에서 밥 먹으며
 비바람에 샷갓 나막신 신고 오랑캐 땅을 잊었네.
 섬 아이 바다 장정 근자에 서로 익숙하여
 때때로 나를 찾아 어려운 글자 묻곤 하네.
 거위가 돼지고기보다 나은 듯하니
 보리누룩 새로 빚어 한 잔 술 보내오네.
 오색구름 서리는 곳 실오라기 같은데
 답답함 깨는 봄 산에 푸른 눈썹 가로놓였네.¹⁵⁾

그는 우선 작품의 전반부에서 유배지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예술가적 기질을 십분 발휘하였다.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망망대해에 가로놓인 삼신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성곽에 둘러 쌓여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 들어서 소동파의 유배생활 모습을 형상화하여 자기의 현재 모습과 동일시하려 하였다. 그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玄亨으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찾아와 기이한 글자들을 묻는다면서 현재 자신의 처지를 은자처럼 묘

15) 김정희, 《완당전집》권9, <偶作>.

사하고 소동파의 유배시절과 대비하려 하였다. 특히 그의 시에 등장하는 ‘笠履’이라는 시어는 실권하여 초라하게 귀향하는 정객의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것은 소동파를 묘사한 것이다. 추사는 유배지에서 유배라는 현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도는 자유인이 되려 하였다. 그는 마지막 구에서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실오라기처럼 가느다란 해배의 꿈을 암시하였는데 속박된 자신의 처지를 순응하여 받아들이지만 일견 이곳에서 벗어나고픈 애절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 | |
|---------|------------------------------------|
| 不算話中與苦邊 | 속은 달고 가는 쓰다는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
| 天風一笠亦隨緣 | 삿갓에 부는 바람 인연을 따르네. |
| 飄零白髮三千丈 | 나부끼는 백발 삼천 길에 이르고 |
| 折磨紅塵六十年 | 홍진에 허덕이며 육십년을 보냈네. |
| 我愛沈冥類中聖 | 내가 깊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주 술잔을 드니 |
| 人憐遠謫漫稱仙 | 사람들이 먼 귀양살이 가엽게 여겨 신선이라 부르네. |
| 蹣跚簞底時行藥 | 찢뚝거리며 때때로 처마 밑에서 약을 달이고 |
| 消受茶爐伴篆烟 | 차 끓이는 연기와 세월을 보낸다네. ¹⁶⁾ |

그는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하였는데 이 작품은 그가 제주 유배 마지막 해에 지은 것이다. 시간적인 배경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이미 현실을 초월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 첫 구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해에 얽매지 않았다고 유배이전을 추억하고 현재의 처지를 인연이라 달관하였다. 심지어 홍진에 허덕이던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다가 다시 삼천장의 백발이 휘날리는 신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 역시 나약한 인간이다. 어쩔 수 없는 그리움에 술잔을 드는 모습을 남들은 가엽게 여겨 신선이라 부르지만 정작 자신은 약에 의지하고 차를 마시며 기약 없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하였다.

이 시의 전반부를 통해 일견 달관한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후반부에 들어 다시 현실로 들어가 약과 차에 의지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대비시

16) 김정희, 《완당전집》 권9, <偶作>.

키고 있는 것이 얼마간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듯 보인다.

| | |
|---------|-----------------------|
| 東風雨後換西風 | 동풍이 비 내린 뒤 서풍으로 바뀌고 |
| 卷盡繁雲碧漾空 | 몽계구름 걷히니 파란 하늘 열렸네. |
| 雨雨風風如是好 | 비 내리고 부는 바람 이처럼 적당하니 |
| 似隨人意補天功 | 사람 뜻을 따라 하늘이 돌보는 듯하네. |

| | |
|---------|------------------------|
| 離合悲歡十二時 | 원 종일 슬픔과 기쁨이 오락가락하는데 |
| 一週圓缺一週思 | 둥글고 이지러질 때마다 생각이 분분하네. |
| 前身本自來天上 | 전신이 본래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
| 除却君王摠不知 | 입금을 제외하곤 알아보는 이 없네. |

| | |
|---------|---|
| 行當騎馬過桑田 | 종당에 말을 타고 상전벽해를 지나니 |
| 可笑秦童弱水船 | 진나라 아이들의 배를 탄 것 가소롭구나. |
| 始識神山非別處 | 비로소 삼신산이 특별한 곳 아님을 알겠으니 |
| 聖恩不死即神仙 | 성인이 그치지 않으면 곧 신선이 사는 곳이라네. ¹⁷⁾ |

그는 유배의 상황에 늘 당당하려 하였다. 이 작품은 전체가 세 수로 이루어졌는데 제1수와 2수에서는 현실에 순응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는 비 온 뒤에 동풍이 서풍으로 바뀌고 온 천지를 뒤덮었던 구름이 일순간 걷히고 비와 바람이 적당하여 마치 하늘이 사람의 뜻을 따라 공력을 베푸는 듯하다며 차분히 주변을 관조하였다. 그러나 하루에도 열두 번씩 바뀌는 유배자의 심경 속에서도 공자가 양화와 닮았다고 광 땅에서 곤욕을 치를 때 초연히 “하늘이 이 文章(禮樂 法度)을 버리지 않고 나에게 계속 말한다면 광 땅의 백성이 하늘의 뜻을 어기고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며 의연했던 모습을 재현하려는 듯이 자신은 천상에서 내려왔는데 군왕만이 알 것이라며 유배의 현실에 당당하려 하였다. 그러다가는 어느 샌가 고향으로 돌아갈 꿈에 사로잡히더니 다시 조정의 간신배들을 진시황에게 아침

17) 김정희, 《완당전집》권10, <次笑簷>.

하려고 불사악을 구하러 동남동녀를 배에 태워 보냈던 사람들에 비유하며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신선의 자리로 돌아가서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 달관된 모습으로 마무리 하였다.

| | |
|---------|--------------------------------------|
| 碧海青天一解顏 | 푸른 바다 파란 하늘 한번 모습 바뀌니 |
| 仙緣到底未終慳 | 신선의 인연 도저히 아직 끝나지 않았네. |
| 鋤頭棄擲尋常物 | 호미 끝에 버려진 심상한 물건들을 |
| 供養窓明几淨間 | 밝은 창 곁 사이에 모시고 공양한다네. ¹⁸⁾ |

사물은 대상을 인지하는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추사가 수선화를 仙의 心象으로 인지하고 仙緣을 다하려 하지만 당시 농민들의 눈에 비친 수선화는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농사에 불편을 끼치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들을 호미로 제거해 버렸던 것인데 그는 이 작품의 제목에서 “土인들이 그것이 무슨 물건인지 모르고 호미로 제거해버린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수선화는 추사가 구속되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아무나 구할 수 없는 이중적 분위기를 지닌 소재였다. 따라서 정갈하게 모시고 공양하려 하였고 실제 수선화를 통하여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던 작품들이 많다. 결국에서 수선화를 모셔놓고 공양하면서 멀리서 내려다보며 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여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는 모습에서 현실에 초연하려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 | |
|---------|-----------------------------------|
| 行人下馬短碑前 | 길 가는 나그네 짧은 비석 향해 말 내리고 |
| 金煥心家舊躑傳 | 김환심 집에서 오랜 자취 전하였네. |
| 一酌橋林明志事 | 굴림서원에 잔을 올려 심사를 밝혔으니 |
| 至今彈淚種薑年 | 오늘에 생강 심던 해를 눈물짓네. ¹⁹⁾ |

18) 김정희, 《완당전집》권10, <水仙花在在處處 可以谷量 田苗之間尤盛 土人不知爲何物 麥耕之時盡爲鋤去>.

19) 김정희, 《완당전집》권10, <尤齋遺墟碑>.

제주에서 우암 송시열(1607-1689)의 유허비를 보았을 때 그에게는 만리 타향에서 뜻하지 않게 친한 이를 만난 느낌이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우암은 숙종 15년(1689) 세자 책봉 문제를 반대하다가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재 국문을 받기 위해 얼마 안 되어 상경 도중 정읍에서 사사된 인물이다. 추사에게 있어 우암은 마음의 스승과 같은 존재였는데 더구나 그의 유허비에 지나는 사람들이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뿌듯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호뭇한 마음이 순간 우암이 유배당한 직후에 ‘굴림서원에 자신의 심사를 밝혀 고하게 한 사실’에 마음이 옮겨 갔을 때 자신의 처지를 우암의 무릎 앞에 하소연 하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우암이 여든의 노구로 짧은 기간 동안 유배되었지만 현실을 달관하며 평상으로 돌아가 태연히 생각을 심던 모습을 추억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생강’은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상시 복용하던 필수 음식이었다. 공자도 속이 좋지 않아 상시로 복용했다고 한다. 결국 우암이 생강을 심으며 현실에 순응하려 했던 것처럼 추사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그의 내적갈등이 일반인과 다른 모습을 느끼게 된다. 그는 열악한 유배환경 속에서 얼마간 비판적이기도 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결국 본연의 모습인 구도자의 자세로 돌아간다. 이것은 아마 서두에도 언급하였지만 그의 유배시기가 삶의 궤적에서 ‘耳順’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의 평상시 삶이 求道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 流配地의 그리움 形象

추사의 유배시기가 求道를 향한 열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지만 이것 자체가 참 인간, 즉 자기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삶을 달관한 그에게도 다른 사람과는 구분되지만 늘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던 것처럼 끈끈한 그리움과 연민이 느껴진다.

| | |
|---------|-----------------------------------|
| 村裏兒童聚見那 | 마을 아이들 누굴 보러 모였는지 |
| 逐臣面目可憎多 | 내 쫓긴 신하 얼굴 가증스럽네. |
| 終然百折千磨處 | 끝내 백 천 번 꺾이고 갈린 곳에 |
| 南極恩光海不波 | 임의 은혜 바다 물결 가라앉혔네. ²⁰⁾ |

그의 그리움은 제주에 도착하며 소회를 드러낸 작품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그는 君恩을 잊지 않았다. 험준한 파도를 헤치고 이곳 탐라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이 임금의 덕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약간의 모순성을 가진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러한 지경에 놓이게 한 장본인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면에 주목하여 臣禮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추사의 현재 심정을 그렇게 딱딱한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보다가는 그동안 가까이 모시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임금의 은혜를 이억 멀리 머나먼 외딴 섬에서 간절히 느끼고 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君, 師, 父의 절대적 개념 하에 살았던 조선 사회에서 戀君 感君은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배지에서 느끼는 감정은 더욱 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추사의 제주 유배 시에서는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경루 옥우의 둥근 달은/ 은혜를 나누어 바다까지 이르게 하네.”²¹⁾(瓊樓玉宇團團月/ 分得恩光到海中)라고 읊조리는 정도이다. 이것은 아마 그가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民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자신의 얼굴을 보려고 모인 섬 속의 愚民들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제주의 백성들에게서 유배지의 이런 모습은 얼마간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었겠지만 평범한 일이었을 것이다. 늘 잡혀 오고 해배되어 떠나는 모습 속에서 식상함을 느꼈을 수도 있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民의 모습에서 그간에 보고도 못 본 듯이 스쳐 지나갔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얼마간 들여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감정은 그간에 곁에 밀접히 있었으면서도 전혀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또 다

20) 김정희, 《완당전집》권10, <瀛洲禾北鎮途中>.

21) 김정희, 《완당전집》권10, <元宵述懷>.

른 대상물 예컨대 血肉 至親 朋友 夫婦 간으로 옮겨 간다.

| | |
|---------|-----------------------------------|
| 南瓜餅賽菊花糕 | 호박떡은 국화 경단에 비기니 |
| 村味爭教野席高 | 마을 마다 맛을 다투 잔치 한창이네. |
| 癡想不生銷不得 | 어리석은 생각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아 |
| 茱萸紅到舊鬢毛 | 붉은 수유꽃 옛 터럭에 꽃았다네. ²²⁾ |

유배지에서 중앙절을 만나 제주의 풍속을 묘사하였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있자니 고향의 형제들이 너무도 보고 싶다.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하고 잊어버리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강하게 다가오는 형제들의 정을 마지막 구에서 옛날에 “높은 곳에 올라 수유 열매를 머리에 꽂으면 사투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지런히 수유 열매를 찾아 온 산을 뒤흔던 어린시절에 대한 생각에 이르자 절정을 맞는다. 구속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아련한 추억은 온통 그리움의 대상일 것이다. 구도자를 자임하며 달관된 모습을 지향했던 추사이지만 그의 이러한 그리움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그동안 너무도 가까이 에 있었는데도 느끼지 못했었다는 아쉬움이 오늘날 오히려 더욱더 간절한 그리움으로 사무치게 하고 있다.

| | |
|---------|------------------------------------|
| 我家金鯉舊橋東 | 우리 집은 옛날 교동에 살았는데 |
| 紅者開兼白者同 | 붉은 것이 하얀 것과 어울려 함께 피었네. |
| 獨對水仙支瘦腦 | 강마른 수선화 가지 독대하고 |
| 未從玉妃笑春風 | 봄바람에 웃음 짓는 옥비를 따르지 못하네. |
| 夢迴淺水黃昏際 | 황혼이라 얇은 물에 꿈의 혼이 돌아오고 |
| 吟斷荒村暮雪中 | 아득한 시골 저물녘 내린 눈 속에 읊조림 끊겼네. |
| 近聞虎兒詩意足 | 근자에 들으니 호아가 시가 넉넉하다 하니 |
| 鄉園物色漫書空 | 향원의 물색을 허공에다 써 갈기네. ²³⁾ |

22) 김정희, 《완당전집》권10, <海上重九無菊作瓜餅>.

23) 김정희, 《완당전집》권10, <失題>.

봄바람에 살며시 자기 곁에 다가온 수선화를 보고 마치 고향에 온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일 뿐 활짝 핀 수선화를 보고 늘 그리워하며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야하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물건으로도 이러한 애잔한 심정을 달랠 수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러한 작자의 그리움이 황혼녘이 다 되어서는 조금 진정된 듯하다가 끝내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체념한다. 하지만 정작 체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들어 더욱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그의 애뜻한 그리움은 다른 작품에서 “오래도록 이 잔을 잊지 말 것이니/ 봄 돛은 반드시 좋은 바람 따라 돌아올 것이네.”²⁴⁾ (長毋相忘此一椀/ 春帆定逐好風回)라며 해배를 암시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에서 작자는 이조년의 <梨花에 月白하고>라는 시조에서 月白, 子規, 多情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나그네의 애뜻한 정을 점층적으로 드러냈던 것처럼 苦惱, 黃昏, 吟斷이라는 시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단계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 | |
|---------|---|
| 那將月姥訟冥司 | 어찌면 장차 월로에게 애원하여 |
| 來世夫妻易地爲 | 내세에선 서로 처지 바꾸고 싶네. |
| 我死君生千里外 | 내가 죽고 그대가 천리 밖에 살아 있어 |
| 使君知我此心悲 | 그대로 하여금 나의 이 슬픈 마음 알리고 싶네. ²⁵⁾ |

그리움 중에 가장 큰 그리움은 내외간의 애뜻한 정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일생동안 함께하며 파란만장한 30여 년의 세월을 아무 구김살 없이 인내했던 부인의 訃音을 접하고 당장이라도 뛰어 올라가 부인의 시신을 부여잡고 솟구쳐 오르는 애절함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심정을 끈으로 발을 묶어 부부의 연을 만들어 준다는 월로에게 애원하여 현재의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매달리고 싶다고 애절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억누를 수 없는 작자의 심정은 현재의 기가 막힌 이 심정을

24) 김정희, 《완당전집》권10, <偶題>.

25) 김정희, 《완당전집》권10, <悼亡>. 이 시는 『완당선생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易地思之하여 부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울부짓음으로 변하여 이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슬픔에 잠기게 하였다. 7언 절구라는 28자의 제약 속에 하염없는 자신의 심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점은 그야말로 추사가 자신이 처한 현실이 그만이 가진 문학적 천재성으로 한없이 발휘되었으니 애도시의 백미라고 하여도 전혀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추사는 부인이 타개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부인이 별세한 그날과 7일 뒤에도 언간을 썼는데 이 얼마나 斷腸의 아픔인가! 현존하는 그의 언간 33통 중에 31통이 부인에게 쓴 것이며 시기로 보아도 33세에서 59세에 부인이 죽을 때까지 놓여 있다. 그 중 13통이 제주 유배 시절에 쓴 것이라 하니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부부애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²⁶⁾

이상에서 추사의 그리움을 戀君之情, 兄弟之情, 故鄉之情 마지막으로 夫婦간의 애틋한 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그가 제주 유배라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그 간에 도외시 하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求道와 達觀의 情景

이제까지 선행 논의에서 작자의 인간적인 내적 갈등의 고뇌를 표출한 부분과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그리움이 형상화된 모습을 살펴려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비친 유배지 제주의 모습에서 앞서의 선행연구에서 파악되었듯이 현실에 대한 달관을 통한 진정한 구도자의 경지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실체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喚風亭接望洋臺 환풍정²⁷⁾이 망양대와 맞닿아 있어

26) 김일근, <諺簡에 投影된 秋史의 人間論>, 《탐라문화》제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27) 제주목 안의 화북진 부근에 있었던 객사로 제주를 드나들던 사람들이 묵었던 장

俯見紅毛帆影來 굽어보니 홍모처럼 돛 그림자 펼쳐지네.
 眼界商量容一吸 눈앞의 경계 헤아려보니 한 눈에 들어오는데
 兩丸出入掌中杯 손에 든 잔 사이로 두 개의 달이 교차하네.²⁸⁾

추사의 유배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대정현이고 게다가 활동범위를 제한한 園籬安置이다. 따라서 아무리 우암의 유배에서 시작된 노론의 인맥으로 인하여 편리를 보았다²⁹⁾고 하더라도 그의 작품 속에 그윽한 남국의 정취를 담아내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결국 환풍정에 올라 눈앞에 펼쳐지는 국한된 모습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러한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제일 먼저 환풍정에 올라 망양대와 맞닿을 듯한 주변 배경을 그리고 나아가 아득한 원경까지 묘사하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풍정에서 펼쳐지는 주변풍경을 바라보며 하늘에 떠 있는 달과 술잔에 어린 달을 벗 삼아 자신의 내면의 경지를 드러내려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경물의 제시에 집착하지 않으려 하였다. 다만 내면의 경지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선두기에 그쳤을 뿐이다.

이러한 '시선두기가 가능했던 배경은 아마 그의 예술가적 경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글씨를 쓰듯이, 그림의 구도를 잡는 것처럼 주변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數朵鷄冠醬瓿東 장독대 동쪽 맨드라미 몇 떨기 피어 있고
 南瓜蔓碧上牛宮 호박 넝쿨 파랗게 외양간을 오르네.
 三家村裏徵花事 고 양 부 삼성의 마을 꽃이 핀 곳 찾으니
 開到戎蔡一丈紅 해바라기 일장홍이 활짝 피어있구나.³⁰⁾

소인데 현재는 유허지만 남아 있다.

28) 김정희, 《완당전집》권10, <喚風亭>.

29) 실제로 복현 김춘택은 제주유배 시절 선대의 후덕으로 인해 말과 종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었고 심지어 유배 마지막 해에 동생과 함께 왔던 부인이 임피로 이배 될 때까지 같이 지내다가 해배되어 돌아왔다.

30) 김정희, 《완당전집》권10, <村舍>.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시골 풍경을 묘사한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제주라는 제한된 환경에 주목하려 하였다. 맨드라미 호박 덩쿨 해바라기 같은 動的인 소재와 장독대 외양간 井乙那의 토속 마을과 같은 靜的인 감미로운 시어를 사용하여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적 안목을 가지고 구도를 잡듯이 적절히 배치하여 靜中動의 한가롭고 조용한 情景를 그리려 하였다. 앞에도 언급하였지만 시인들에게 있어 자연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데 천명에 순응하며 성명을 보전하려는 장으로씨의 전원, 일시적 환경 극복으로씨의 전원, 미적 관조와 구도를 위한 전원으로 나눌 수 있다.³¹⁾ 이 작품은 마지막에 해당될 터인데 철저한 예술가적 통찰력에 의지하여 빨강 파랑 노랑 삼색의 조화가 어우러진 촌가의 情景를 묘사하여 ‘詩中有畫’를 실천하려 하였다.

여기에서 왜 詩書畫를 군자 삼절이라 했으며 또한 畫가 그 속에 어떤 구실을 하며 더 나아가 예술가의 천재적 기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어째서 추사의 제주 유배 시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 | |
|---------|------------------------|
| 福星十九社中光 | 복별이 옹기종기한 마을 비추니 |
| 大麥坊黃四野香 | 누런 보리 온 들 진동시키네. |
| 近日官家無外事 | 근자에는 관가에 밖의 일이 없는 듯 |
| 婆婆樹下午眠長 | 축 늘어진 나무 아래에서 오수를 즐기네. |

| | |
|---------|----------------------------------|
| 大好新晴碌碌場 | 새로 개인 들녘 보기 좋은데 |
| 兩岐何似去年長 | 양기는 거년과의 차이를 묻네. |
| 空中不斷連枷響 | 공중에 도리깨질 이어지니 |
| 天上人間麥飯香 | 천상의 인간 보리밥이 향기롭네. ³²⁾ |

농촌의 평범한 일상을 묘사하려 하였다. 첫 수에서 노랗게 익은 평화로

31) 김상홍, 《茶山 丁若鎔 文學研究》, 단국대출판부, 1986.

32) 김정희, 《완당전집》권10, <打麥二絕寄北青明府便面>.

운 시골의 情景 속에 오수를 즐기는 일 없는 관리의 모습에까지 靜的인 모습을 그리려 하였다. 그러다가 돌연 두 번째 수에서 도리깨질하는 動的인 농부의 모습을 등장시키더니 동분서주 농사일에 전념했던 兩岐를 자기와 동일시하여 고뇌와 근심어린 눈으로 농촌을 바라보려 하였다. 특히 두 번째 수에서는 평소 관심이 없던 농사일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드러내어 내면의 구도자적 자세가 밖으로 조직화된 모습을 나타내려 하였다. 이와는 다르지만 “성 안팎의 샘물 맛 시험해보니/ 올라 땅에서도 차를 품평할 수 있겠네.”³³⁾(泉味試分城內外/ 乙那亦得品茶無)라고 하면서 忙中閑의 그것과는 차별화된 유배지의 외형적 답답함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려는 구도자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그는 예술가적 관점을 가지고 자연을 관조하고 내면의 조화를 추구하여 진정한 구도자적 삶의 자세를 견지하려 하였고 고뇌를 털어내고 그리움을 삭이면서 유배환경을 받아들이고 더 큰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추사에게 있어서 유배기는 인생을 돌이켜 보고 정리해 보는 인생의 황혼기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데 앞서 전개한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첫째, 추사는 유배 시절 戀君之情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 진출에 대한 미련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그는 제주 유배시절 그간에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부인의 죽음에 대한 애절함 속에서 그의 인간

33) 김정희, 《완당전집》권10, <汲古泉試茶>.

적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추사는 자신의 유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심지어 隱者처럼 느끼며 현실에 대한 달관을 통해 구도자적 모습을 드러내었다. 특히 예술가적 천재성으로 '詩中有畫'의 경지를 실천하려 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추사는 제주의 낯설고 고립된 유배 환경을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장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의 유배시들은 삶의 역정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로 이방인에 의해 성취된 일정한 지방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핵심어: 유배시, 내적갈등, 구도, 달관

<참고문헌>

- 김정희, 《완당전집》.
- 진재교, <實學派의 漢詩>, 《이조후기 한시의 사회사》, 소명출판, 2001.
- 김상홍, 《茶山 丁若鎔 文學研究》, 단국대출판부, 1986.
- 한철희, <阮堂金正喜藝術攷>,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69.
- 이우성, <金秋史 및 中人層의 性靈論>, 《韓國漢文學研究》제5집, 한국한문학 연구회, 1980-1981.
- 김혜숙, <김정희의 시론 연구>, 《울산어문논집》제5집,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 정동우, <阮堂 金正喜의 詩文學攷>, 《동악한문학논집》, 동국대학교, 1992.
- 양순필, <秋史 金正喜의 漢文書翰攷>, 《탐라문화》제9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 옥영정, <秋史家の 藏書에 관한 一考(東濱文庫 所藏本을 중심으로)>, 한국서지학회 추계발표회, 2003.
- 정후수, <金正喜가 본 濟州道の 修學분위기>, 《동양고전연구》, 1995.

- _____, < 秋史 金正喜 詩의 한 特性(典故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1994.
- 양순필·양진건,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 강주진, <僻派家門 出生의 秋史 金正喜(濟州 流配動機를 중심으로)>,《탐라문화》, 탐라문화연구소, 1987.
- 김봉옥, <추사 김정희의 유배서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용태, <玉垂 趙冕鎬를 통해 본 秋史 金正喜>, 대동한문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2005.
- 김태수, <추사의 유배시 연구>, 《한국학논집》제10집, 1992.
- 이철희, <추사 김정희의 시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부영근, <北軒 金春澤의 『閃海錄』의 한 局面>,《한문학연구》제17집, 계명한문학회, 2002.
- _____, <石北 申光洙의 『耽羅錄』考察>, 《영주어문》제8집, 2004.
- _____, <地方文學으로써 石北의 한시>, 《동아인문학》제6집, 2004.
- 안대회, <朴齊家の 『竟信堂夾袋』와 北關風情>, 《韓國漢詩研究》제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 김일근, <諺簡에 投影된 秋史의 人間論>, 《耽羅文化》제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7.

<Abstract>

Chinese poetry of Chusa Kim Jung-hi(秋史 金正喜) as a
part of an attempt to research exile literature

Boo Young-gen

One will never hesitate about suggesting Chusa Kim Jung-hi (1786-1856) as a great scholar of the Chinese classics who embroidered the end of the Yi dynasty by fully accepting the wild waves of practical science of the Qing dynasty and capturing such a spirit of the times rapidly to cope with the sense of the times and pursue a new study. He really left various works in new studies, thoughts, art, and so on.

This study examined works produced from September in the sixth year of Heon-jong (1840), when he was involved in Yun Sang-do's death in prison and enclosed in a thorn hedge in Daejeong-hyeon, Jeju-do at the age of 55, to December 6, 1848 (14th year of the same king), when he was released at the age of 63.

Until now, studies on Chusa have been developed actively in response to his gifted artistic value and those on his literary works obtained certain results together with translations of a collection of works. Studies on his works produced during the exile in jeju have been carried out steadily as a part of an attempt to research exile literature and obtained certain results. Two of the most notable papers are Kim Tae-su's and Lee Cheol-hi's. Therefore, I also want to join such a stream and pay attention to independent environment of Jeju.

This study intended to classify all poems written during his exile in

Jeju by contents and types, approach his world of poetry through prior studies on the entity of oneness between objects and self he attempted to pursue to the last, and approach the subjective truth with three charts: representation of suffering from internal conflicts, embodiment of longing in a place of exile, and composition of harmony between landscape and menta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literary value of Chusa's poems written during his exile in Jeju is expected to bear some fruitful results in relation to studies to understand how the same material is expressed by different writers or temporal situations, for example, with *Mandeokjeon* by Chae Je-gong (1720-1799), poems by Cho Su-sam (1762-1849), and *Tammagi* by Hwang Sang-do, a story of Mandeok who tried her best to relieve the poor in Jeju, which has a certain trend for the latter period of Chosun as works of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with strangers' Jeju for a background, studies on individual works including *Suhaerok* by Bukheon Kim Chun-taek and *Tammarok* by Seokbuk Shin Gwang-su, and those on reports by many officials who visited Jeju.

- Key Words: seek after truth, a poem of exile, the complications of the mind, a far-sighted view with mind